

**전주시, 환경미화원 위안잔치**



환경미화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벽녘이면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나서는 환경미화원, 이들을 위한 잔치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1년에 꼭 한번 전주시 환경미화원 후원회가 마련하는 위안잔치다.

지난 12월 17일 전주 워싱턴웨딩타운에서 여덟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 환경미화원 2백여명을 비롯해 불우이웃 50명이 참석했다.

후원회는 이들 환경미화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고, 모범환경미화원으로 선정된 5명에게 제주도 효도관광 여행권을 증정했다.

**서울시, 어린이 환경교실 개최**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은 겨울 방학을 맞아 올 1월에 '어린이 문화교실'과 '어린이 환경교실'을 각각 연다고 지난 12월 11일 밝혔다.

올 1월 5~9일 열리는 문화교실은 전통한옥의 이해, 서울시립미술관 견학, 국악의 이해와 우리 소리 감상, 선수유적지 여행 등의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친환경적 최첨단 영천그린환경센터 준공식**

영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천시 완산동 영천그

린환경센터(쓰레기처리장)가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착공 2년만인 지난 12월 23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바스프, 환경대상 상금 불우이웃돕기에**

한국바스프(주) 지난 12월 10일 울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친화경영 대상으로 받게 된 수상금 1000만원 전액을 울산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한국바스프(주) 울산유화공장은 지난 12월 4일 선진 환경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울산시와 울산지방검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2003 울산환경대상'의 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환경부인사**

**04급**

▶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광석 서기관에 임함

▶ 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사무관 이규만 환경서기관에 임함

▶ 대구지방환경청 기계사무관 허만천 공업서기관에 임함(12.16)

**04-5급**

▶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서기관 김진석 환경부 근무를 명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캐나다 연방정부 환경부, 2003.12.10~2004.12.9)

▶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행정사무관 정종선 환경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미국 델라 웨어대, 2003.12.16-2005.6.14) (12.8 환경부장관)

### 03급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 서기관 김원민 부이사관에 임함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장 공업서기관 안문수 공업부이사관에 임함(12.5 대통령)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이사장 정혁진(丁赫鎭, 57) 전 환경부 1급 관리관(11.24 환경부장관)

## 2003년 나쁜 광고 대상에 P&G 페브리즈

환경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뽑은' '2003 제2회 올해의 나쁜 광고상'에 P&G사의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 광고가 선정됐다.

시민연대는 지난 11월 27일 세제·세제류, 방향·탈취제 등 생활용 화학제품중에서 뽑힌 11개 후보 작에 대해 시민 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한 평가에서 P&G 페브리즈가 2003년 나쁜광고 대상에, 한국크로락스 홈메트리퀴드가 2위, 애경 스파크가 3위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페브리즈는 불필요한 화학물질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어린이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 일광소독·환기 등 친환경적인 방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홈메트리퀴드는 제품유해성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이, 스파크는 왜곡된 청결문화와 이를 통한 어린이들간의 위화감 조장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

##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 청사 준공식

지난 11월 28일 오전 11시 고령군 다산면 평리에 서 이태근 고령군수, 관계공무원, 시공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는 총 공사비 14억원을 투입, 대지 732.3평, 건평 509평(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지난 2월 착공해 9개월의 공사 끝에 지난 11월 25일 완공됐다.

## 인천해양청 해양환경 선상세미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2월 19일 인천, 서울 등 수도권지역 초·중·고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바다환경보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 및 토의를 갖는 해양환경 선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하천 5곳 정비 2007년까지 860억 투입

인천시는 860여억원을 투입, 지역내 주요 하천 5곳을 '맑고 푸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12월 16일 밝혔다.

## 창녕군, 쓰레기줄이기운동 전개

창녕군은 지난 12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1회용에 대한 대적인 지도점검을 벌였다.

## 복제군, 쓰레기감량 마을 평가 올해부터 실시

쓰레기 감량화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마

을평가가 실시된다.

북제주군은 지난 12월 16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우수마을을 선정, 상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로구 환경관리인 교육 실시



구로구청은 지난 12월 15일 관내 환경관리인 985명을 대상으로 청사 강당에서 "환경관리인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표들과 환경관리인들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환경운동연합회 '2003년 환경인상' 수상

환경운동연합이 2003년 13회째 선정한 '2003 환경인상' 수상자로, 녹색시민상에 새만금 삼보일배단(수경 스님·문규현, 신부·이희운, 목사·김경일, 교무·김숙원 교무), 녹색언론인상에 엠비시스페셜 <갯벌, 그 후 10년> 제작팀 및 김현철 프로듀서와 오마이뉴스 취재부(김병기·권우성·권박효원·김치은·성낙선), 녹색정치인상에 김상현 의원(민주당), 녹색공무원상에 조연환 산림청 차장 등이 뽑혔다. 또 특별상은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범

부안군민대책위원회와 안창호 육군본부 소령에게 돌아갔다. 전체 6개 부문 가운데 녹색문화예술인상과 녹색기업인상은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 오산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오산시가 지난 12월 대기오염예방 및 시민알권리 충족의 일환으로 시 관내에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설치장소 선정에 나섰다.

시는 올 2월말까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환경단체, KT, 가스공사 등 유관단체·기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의활동을 펴고 있다.

### 구리시 환경지원우수시책 기관 설정

구리시자원회수시설이 경기도 2003년도 환경자원 우수시책 평가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 확충 및 관리부문' 우수시책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환경자원 우수시책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도내 대학교수와 경기개발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 심사단'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 확충 및 관리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지 확인 등의 심사를 실시했다.

### 韓·中 환경기술 협력강화 합의

한국과 중국은 황사 및 사막화 방지 공동대처 등 환경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지난 12월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중·일 환경장관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한명숙 장관은 12월 14일 베이징호텔에서 중국의 시에젠화 환경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올 5월까지 환경 산업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 송도신도시에 야생조류공원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에 야생조류공원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5년까지 모두 50억원을 들여 송도신도시 4공구 5만8000여평에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희귀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야조(野鳥)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워크숍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鄭長燮)이 지난 12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의 연구학교 운영성적을 평가하는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21세기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의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에너지절약교육 현황과 학교 에너지절약교육 사례, 그리고 지자체 인정도서 보급방안 및 필요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 시흥시, 일회용품 단속

시흥시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올 1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북제주군, 음식폐기물 용기 보급

북제주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용기를 모범음식점 66곳에 제공했다.

북군이 보급한 폐기물 용기는 음식점의 영업장 규모에 따라 용량이 대형(40), 소형(10)으로 구분됐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냄새방지와 위생을 고려, 열고 닫기 쉬운 뚜껑을 부착하는 한편 대형용기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편리하도록 제작됐다.

### 한국도요타 환경재단 만분클럽 가입

한국도요타자동차(대표 오기소 이치로)는 지난 12월 2일 역삼동 한국도요타 본사에서 박건우 회장, 오기소 이치로 사장,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분클럽(萬分 Club)" 가입 약정식을 체결했다.

환경재단 산하의 '만분클럽'은 매출의 만분의 일을 기부해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모임으로, 한국도요타는 이번 만분클럽 가입으로 환경운동을 통한 사회 공헌에 참여하게 됐다.

### 한상궁 양미경, 환경재단 홍보대사

'한상궁' 양미경이 환경재단(이사장 이세중)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MBC '대장금'에서 한상궁으로 출연하는 양미경은 지난 12월 28일 오후 조선히otel에서 열리는 환경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 친환경농업관 첫 개관

경기도 양평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농업관'이 건립돼 지난 12월 4일 환경부장관과 도지사, 농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지하 1층은 식당, 지상 1층은 강당, 2층은 분임토의실과 3~4층은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될 친환경농업관은 앞으로 친환경농업 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평군은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운동을 전개, 현재 전체 농가 중 유기농업 10%, 무농약 20%, 저농약 70% 등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1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성과 발표회 개최**

지역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활동해 온 전국 16개소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지난 11월 27일, 28일 이틀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 모여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사업의 성과는 총 16건으로, 지역의 산업체와 협력하여 성공시킨 직장내 근무환경과 공정개선사례,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호소생태계를 복원시킨 사례 등이며, 지역의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경북 환경문화상 특별상-울릉·달성군 공동 수상**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TBC 대구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5회 대구·경북환경문화상 특별상 부분에 울릉군과 달성군이 공동 수상하게 됐다.

지난 11월 25일 대구인터블로그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환경문화상 대상에는 울진군, 최우수상 달서구청, 우수상은 안동시와 영주시가 공동 수상하고 특별상은 달성군과 울릉군이 함께 공동 수상했다.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및 S/W 업데이트 공개 설명회**

환경부에서는 EU 등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02년 12월에 개발된 "에코디자인 일반지침서 및 S/W"를 개발했다. 이를 국내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코디자인 보급 확산 및 S/W 업데이트"(연구수행기관:에코프론티어)를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기업, 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

**토목상식** 자동차 히터: 히터는 엔진에서 순환되는 냉각수의 열량을 흡수하여 자동차 실내 공기를 데운다. 따라서 춥다고 시동을 걸자마자 히터를 틀면 데워지지 않은 히터의 바람이 체감온도를 떨어뜨려 더 춥다. 엔진이 예열될 정도로 충분히 운행한 뒤 한번에 히터를 최대로 틀어 실내를 데우는 것이 보온 효과를 높이고 기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엘리베이터가 충돌할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추락할 때 충돌 직전 경충 뛰어오르면 다치지 않을까? 결론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선 줄이 끊어진 엘리베이터 안은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발을 살짝 굴러도 천장에 머리를 세계 부딪칠 수 있다. 또 60층 높이에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지면에 닿기 직전 속도는 250km, 그 안에서 뛰어오르는 것은 시속 250km로 질주하는 고속전철 앞에서 뛰어 도망가는 것만큼 어렵다.